

익산시,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행안부, 익산 포함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방비로 부담 복구비 50~80% 국비로 전환... 재정부담 ↓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익산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 15곳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발표된 우선 선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24일 진행된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금액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한 해

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인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재난지원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이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12종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정부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긴급 복구를 마

친 산사태 지역과 농·배수로, 하천 등에 대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항구 복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계획을 마련해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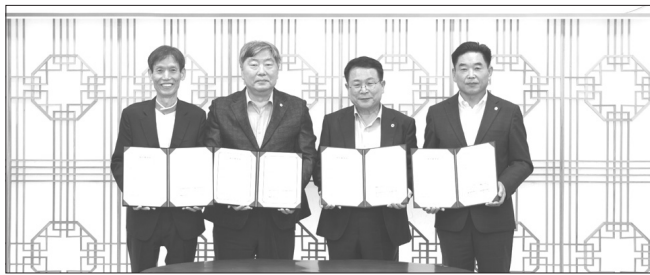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시민에 잠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등 추가 선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위해 '한 뜻'

글로벌대학30 성공적인 추진 위해 업무협약... 생명산업 분야 적극 협력·지역 혁신·발전 방안 논의

익산시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시의회를 비롯해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힘을 모은다.

시는 25일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원광대 글로벌대학의 특화 분야인 농생명, 의생명, 바이오, 생명서비스 등 생명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한 지역 혁신·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생명산업 융합 벨리 구축 공동사업 발굴 및 상호 협력 △생명산업 분야 전문 인력양성 교과 개발 및 인적 교류 △생명산업 산학협력 분야 공동연구 및 미래 혁신 교육모델 구축 △지역 정책연구 및 국제사업 발굴 등이다.

박성태 총장은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은 지역대학·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는 정현을 시장님과 김경진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원광대학교가 글로벌대학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군산시 '소셜아이어워드 2024'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 수상

소셜미디어 활용한 시정소통 우수성 입증

군산시가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4' 시정 분야 블로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소셜아이어워드는 국내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어워드 평가위원단이 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군산시 공식 블로그는 글로벌미디어와의 협업으로

캐릭터 밝음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계절감 있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소식, 군산여행, 지역맛집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테고리별로 가독성을 높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민·관 청렴 거버넌스 구축

국·소·단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과 청렴실천 협약

익산시가 부패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청렴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 9개 국·소·단은 7월 한 달간 청렴실천 협약 릴레이를 추진해 민·관 청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거버넌스는 업무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렴 방향 및 의견 제시를 비롯해 △청렴 시책 △청탁금지법 정착 △시민사회 청렴 문화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렴 실천을 확대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안전국-익산시 새마을회 △경제관광국-익산시상공회의소 △복지교육국-원광종합사회복지관 △바이오농정국-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녹색도시환경국-익산산립조합-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신재생지원센터와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또한 △건설국-전문건설협회 익산시협의회-익산지역 건축사회 △보건소-익산병원 △농업기술센터-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 △상하수도사업단-K-

water 전북지역협력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시는 다음달 익산시장 주재로 민·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공직사회 내부 및 대외 전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시책과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취약분야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에 동참해 주신 유관기관·민간단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청렴 거버넌스로 지식·정보 교류, 청렴에 관한 공동활동을 수행해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직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8~9월 반부패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소통 공감활동 △취약분야 현장 소통 상담 △Z세대의 조직문화 개선 청렴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적극 추진

군산시가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인력 부족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등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해 청년창업농 40명을 선발,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일단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농기구입 등 영농기반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연리 1.5%), 분할상환조건(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차료 50% 지원, 자금대출의 이자 0.5% 지원, 청년농업인들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류 및 문화활동까지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하게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나서

위기 임신부·태어난 아동 위해 '보호출산제' 시행

군산시가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에 나선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신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되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전화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전화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공적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